

B946074 김민재

개성

“[명사]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개성의 정의이다. 그리고 나열되는 유의어들 “성격, 개인성, 개별성, 컬러, 특성, 인간성”.

사전의 정의 되어 있는 것처럼 개성은 고유의 특성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개성은 우리가 음식을 접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는 속이 편안한 집밥, 또는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지만 너무 나의 입맛에 맞아 꽃히게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뻘히 몸에 나쁜 것을 알지만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개개인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음식들을 먹어보며 입에 끌리고 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속이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이 다르게 정해진다. 그리고 개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편한 집밥만 먹는다면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안하겠지만,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몸에 해로운 것들을 찾는다. 예를 들어 담배, 햄버거, 치킨, 피자, 술, 엄마 몰래 먹는 야식 등등.. 우리는 그것을 먹으며 다음 날에 속이 아플 것도 알고, 혼이 날 것도 알고, 속이 더부룩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자극을 즐긴다. 만약 이런 불량한 음식이 없으면 과장을 조금 보태 인생의 낙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누가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길 원하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의 이유가 되는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는 이러한 관계가 “+1” 과 함께 “-1”이 따라와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 과정에서 “+α”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집밥과 같은 “+0” 만이 인생에 반복이 된다면 편할 순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도 얻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 그리고 개성 또한 없을 것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미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 까지 약 9 년 정도 미술을 접해왔다. 물론 미술이 재미있고 할 때 마다 배울 점이 많은 장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와서 당연하게 느껴 지기도 한다. 또한 전공이기도 하기에 흥미로 느껴 지기 보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와 무겁게 느껴 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컴퓨터 작곡을 접하게 되어 현재 까지도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전공 분야가 아니기에 서투르고 매 작업마다 퀄리티가 뒤죽박죽 하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진로를 생각하는 현재, 가끔 전공을 할 시간을 쪼개 음악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들고, 알게는 죄책감 또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작곡을 할 때 마다 마음이 끌리고, 서투르게 작업을 하고 곡을 완성할 때 마다 오는 만족감에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듯 개성은 꼭 잘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이 아니더라도, 못하는 것 일지라도, 또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미래의 내가 후회할 지라도, 내가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결정 하는 것을 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본다.